

## 자매들을 위한 공과

### 제 6 과

#### 하나님의 행정 안에서 여자 - 머리의 권위와 머리를 덮음

성경: 창 2:7, 18-24, 3:1-6, 고전 11:2-16, 딤편 2:14

#### I. 여자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여자가 남자를 대표한다는 것이다.

- A. 이사야서 54 장 5 절은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유일하며 우주적인 남편이시다.
- B. 남성이든 여성이든 우리는 모두 그분의 아내의 한 부분이다. 남자의 위치는 남편의 위치가 아니다. 남자의 위치는 아내의 위치이다.
- C.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다. 머리의 권위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고, 남자들에게도 있지 않다.

#### II. 여자의 실패는 남자 위에 있는 것과 머리의 권위를 가지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창 3:1-6, 비교 딤편 2:14.

- A. 하와에게 있었던 이러한 실패는 사람이 머리의 권위를 가지는 것을 예표하며 사람이 하나님 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제쳐두는 것을 상징한다 — 창 3:2 각주 1.
- B. 똑 같은 이 원칙이 오늘날도 작용한다.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을 제쳐두고 우리 스스로 행동할 때 우리는 패배당한다.

#### III. 여자의 위치는 자신의 머리를 덮는 것이고 결코 머리의 권위를 갖지 않는 것이다.

- A. 우리는 반드시 항상 하나님의 덮으심 아래 자신을 두어야 한다. 여자는 반드시 자신의 머리를 덮어야 하며 결코 머리의 권위를 갖지 말아야 한다 — 고전 11:3, 5, 14-15 .
- B.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분께 돌이켜야 한다.

#### IV. 머리를 덮는 것은 권위에 대한 복종의 상징이다 — 고전 11:10.

- A. 고린도전서 11 장 10 절은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권위에 복종한다는 표시를 자기 머리에 두어야 합니다."라고 한다.
  - 1. 머리는 권위를 상징한다.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르면 여자가 비록 자기 자신의 머리가 있다 하더라도 머리가 되어서는 안되며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
  - 2. 따라서 여자는 자기 자신의 머리가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머리가 아니며 머리로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자 선언으로서 자신의 머리를 덮어야 한다.
- B. 머리를 덮는 것은 여자가 권위 아래 있다는 것과 다른 사람을 자신의 머리로 시인하고 받아들인다는 것, 즉 그를 자신의 머리로 허락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여자가 자신의 머리를 덮는 것은 권위에 대한 복종의 상징이다.
- C. 5절에서 바울은 "머리를 덮개로 가리지 않고 기도하거나 선언하는 여자는 모두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 여자가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한다.
  - 1. 여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위하여 말함으로써 신성한 행정을 만질 때 남자의 머리의 권위 아래 있기 때문에 여자는 머리를 드러내지 말고 계속 덮개로 가려져야 한다.
  - 2. 그렇지 않다면 여자는 자신의 머리를 민 것처럼 자신의 머리를 욕되게 하거나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여자가 하나님의 권위를 만질 때 그것을 바라보는 천사들에게 자신의 머리를 드러냄으로써 신성한 행정적 질서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D. 6절은 "여자가 덮개로 가리지 않으려거든 머리를 깎으십시오. 그러나 여자가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부끄럽거든 덮개로 가리십시오."라고 한다.
  - 1. 이것은 머리를 덮개로 가리는 것이 머리털을 길게 하는 것 외에 덮는 것임을 가리킨다.
  - 2. 여자가 머리를 밀지 않고 머리털을 길게 하는 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행정적인 정하심을 거절하지 않는 것을 상징한다. 또한 여자가 머리털을 길게 하는 것 외에 머리를 덮개로 가리는 것은 신성한 정하심에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V. 우리는 머리를 덮개로 가리는 이유들을 알아야 한다.

- A.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지만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 고전 11:7.
  - 1. 남자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창 1:26)대로 창조되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지니고 있으며 하나님을 대표하기 때문에 자신의 머리를 덮개로 가리면 안된다. 남자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가려지게 될 것이다.
  - 2.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여자는 자신의 머리가 나타나지 않고 덮여지도록 해야 한다. 여자는 자신을 표현해서는 안 되며 자신 위에 있는 남자를 표현해야 한다.
- B.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다 — 고전 11:8.
  - 1. 남자에게서 갈빗대를 취한 것처럼 여자는 남자로부터 만들어졌다(창 2:21-23). 하나님은 여자를 창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남자의 몸을 지으셨고 이 몸 안으로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 결과 아담이라는 이름의 남자는 산 혼이 되었다.
  - 2. 하나님께서 남자가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고 그의 옆구리를 여신 후에 갈빗대를 빼내시고 그 갈빗대를 사용하여 여자를 건축하셨다. 따라서 여자는 창조되지 않고 남자로부터 나왔다. 이것은 여자의 위치가 남자의 옆구리라는 것을 가리킨다.
- C.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되었다 — 고전 11:9.
  - 1. 여기서 사도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머리를 덮개로 가리는 것에 대한 자신의 가르침을 위한 또 다른 강한 근거로 취한다.
  - 2. 그것은 결코 사람이 만든 관습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창조의 신성한 목적에 근거한 것이다. 창조에 있어서 여자는 남자와 짝이 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지어졌다 — 창 2:18, 24.
- D.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반드시 자신의 머리 위에 권위를 가져야 한다 — 고전 11:10.
  - 1. 여기서 권위는 머리를 덮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여자에 대하여 남자가 머리로서 권위인 것을 상징한다.
  - 2. 천사장인 사탄은 하나님을 위하여 우주를 통제하는 위임을 받았었다. 그러나 그는 반역했고 얼마의 천사들이 그를 따랐다. 물론 대다수의 천사들은 하나님을 위해 신실하게 남아있었다. 하나님은 반역적인 천사들을 처리하기 위해 사람을 창조하셨다.
  - 3. 교회로서 우리는 천사들에게, 즉 반역적인 천사들과 또한 복종하는 천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백성인 우리가 그분의 머리의 권위에 거역하지 않는다고 선포해야 한다.
  - 4. 이러한 반역적인 시대 안에서도 우리는 그분의 권위에 복종한다. 자매들이 머리를 덮개로 가리는 것은 천사들에게 이것을 선포하는 상징이다.
- E. 남자에게 머리털을 길게 하는 것은 불명예스럽지만 여자에게 머리털을 길게 하는 것은 영광이라는 것은 본성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 고전 11:14-15.
  - 1. 여기서 바울이 본성을 말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따른 우리의 자연스러운 조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본성 자체가 우리에게 남자는 머리털을 길게 하지 말아야 하며 여자는 머리털을 길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 2. 여자는 자신의 여성으로서의 조성에 의해 자신의 머리를 덮기 위해 머리털을 길게 하는 것이 영광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것은 또한 머리를 덮개로 가리는 것에 대한 사도의 가르침을 위한 강한 근거이다.

VI. 우리는 머리를 덮개로 가리는 것을 단지 외적인 형식으로 만드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성경에서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머리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러한 상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제시한다는 것이 사실이다.

- A. 교회 집회에서 자매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분의 머리의 권위를 존중한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역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 머리를 덮개로 가리는 것이 있어야 한다. 오히려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분께 복종하며 머리를 덮개로 가림으로써 이것을 나타낸다.
- B. 그러나 이것이 50년 이상 우리의 실행이었지만 누구에게도 이러한 실행에 동참하라고 강요한 적은 없다. 머리를 덮개로 가리는 것에 대해 말할 때 우리의 의도는 자매들이 다만 교리적인 방식에서 외적인 실행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 C. 자매가 자신의 머리를 덮개로 가릴 때 그 자매는 머리를 덮개로 가리는 것의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

## II. 머리되심

[고린도전서 11 장] 3 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고 말한다. 이 구절에서 16 절까지는 머리를 덮는 것에 관한 일곱 번째 문제를 다룬다. 한 그룹으로 간주할 수 있는 처음 여섯 가지 문제들은 1 장부터 10 장까지에서 다루어졌다. 그것들은 인간 생활의 영역 안에 있는 문제들과 관련된다. 11 장부터 16 장까지에서 다루고 있는 마지막 다섯 가지 문제들은 다른 그룹을 이룬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행정의 영역 안에 있는 문제들과 관련된다. 첫 번째는 거룩한 통치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머리되심에 관계된다. 에베소서 1 장 22 절과 23 절에서 만물 위에 그리스도의 머리되심은 그의 몸인 교회에게이다. 여기에서 각 사람위에 그리스도의 머리되심은 개개인에 관계된다. 그리스도는 단체적으로는 몸된 교회의 머리시요 개인적으로는 믿는이들의 머리이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머리가 되신다. 하나님의 행정에 관한 고린도인들의 문제들을 사도가 다룸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머리되심의 문제가 그의 첫 번째 관심이었다.

3 절에서 바울은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는 것을 지적한다. 거룩한 통치적인 배열 안에서 여자는 남자의 머리 됨 아래에 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이렇게 창조하셨다(창 2:18-24, 딤후전 2:13). 하나님의 창조의 본성에 따르면(고전 11:14)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되어 있다.

바울은 또한 3 절에서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며 하나님에 의해 임명된 분이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아래에 있으며 명령자인 하나님은 그의 머리이다. 이것은 거룩한 통치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가리킨다.

머리 덮는 문제를 다룸에 있어 사도는 하나님의 머리되심과 그리스도의 머리되심과 그의 가르침을 위한 강력한 근거로 남자의 머리 됨을 취한다. 머리를 덮는 것에 관한 그의 가르침은 종교적인 실행이나 인간의 풍습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적 행정 안에 있는 머리되심에 근거한다. 이 같은 강한 기초는 머리 덮는 문제에 어떤 다툼의 여지도 남겨 놓지 않는다.

구원받은 직후에 나는 머리 덮는 것에 관한 많은 말을 들었다. 어떤 이들은 그 당시 사람들 사이에 그 같은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머리 수건에 관해서 말했다고 논쟁했다. 후에 연구를 통해 분명해진 것은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그러한 풍습이 없었다는 것이다. 사실 유대인의 풍습에 따르면 제사장들이 그들의 머리를 덮어야 했다. 고린도전서 11 장에 있는 바울의 교훈은 지중해 연안에서 발견된 어떠한 풍습에도 기초한 것이 아니다. 반대로 그의 가르침은 거룩한 계시에 의한 것이다.

교회에서 머리를 덮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머리를 덮는 것이 하나님의 머리되심과 관계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11 장 3 절에서 우리에게 각 사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인 것을 알기 원한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머리를 덮는 것은 하나님의 행정 안에서 머리되심과 관계 있다. 우주 안에, 특히 하나님의 통치적인 행정 안에는 순서가 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위에 머리이시며, 그리스도는 각 남자 위에 머리이시며 남자는 여자 위에 머리이다. 그러므로 교회 집회에서 자매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분의 머리되심을 존경하므로 하나님께 대해 반역하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머리 수건을 써야 한다. 우리는 그분께 절대적으로 복종적이며, 머리를 덮어 이것을 표현한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이것을 50 년 이상 실행해 왔지만 어떤 사람에게도 이같은 것을 실행하도록 강요하지 않았다. 우리는 머리에 쓰는 것을 단지 외적인 형식으로 만들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머리되심 아래 있는 백성임을 선포하는 표시를 교회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 III. 머리 수건

### A. 무릇 남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것은 그의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임

4 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라고 한다. 여기에서의 예언은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남자는 여자 위에 머리됨을 가지며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나 그분을 위해 말할 때나 하나님의 행정의

보좌를 만질 때 그의 머리를 나타내야지 가리거나 덮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그의 머리를 욕되게 하고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기도하거나 예언함으로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것은 중대한 일이다. 우리의 기도나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것은 둘 다 하나님의 행정에 관계된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권위와 머리되심에 관계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인 남자들은 기도하거나 예언할 때 그들의 머리를 덮지 말아야 한다. 이럴 때 우리의 머리를 덮는 것은 우리의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 **B. 무릇 여자가 머리를 덮지 않고 기도나 예언하는 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임**

5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무릇 여자로서 머리를 덮지 않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고 말한다. 여자는 남자의 머리 됨 아래 있기 때문에 여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위하여 말함으로 거룩한 행정을 만질 때 머리를 덮어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하나님의 권위를 만질 때 주목하고 있는 천사들에게(10 절) 그의 머리를 드러내어 거룩한 통치적인 배열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는 그의 머리를 민 것과 다름없이 그의 머리를 욕되게 하며 수치스럽게 한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의 머리를 욕되게 하는 여자는 그의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한다. 이것은 여자가 그의 머리를 밀거나 그의 머리를 자르는 것이 부끄러움이라는 강한 의미이다(6 절).

6절은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고 말한다. 이것은 머리 수건이 긴 머리에 더하여 쓰는 것임을 가리킨다. 여자가 머리를 밀지 않고 긴 머리를 가졌다면 이는 하나님의 통치적인 배열을 거부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여자가 긴 머리 위에 머리 수건을 더한 것은 거룩한 명령에 아멘하는 것이다.

## **IV. 그 이유**

### **A.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임**

머리 덮는 것에 대한 한 가지 이유는 7절에 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창 1:26).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대표하기 때문에 마땅히 그의 머리를 덮지 말아야 한다. 그가 만일 머리를 덮는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가리워질 것이다.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녀는 그 머리를 드러내지 말고 덮어야 한다. 여자는 자신을 표현하지 말고 그 아래에서 남자를 표현해야 한다. 이것 또한 머리 덮는 것에 대한 가르침에 있어서 사도가 취한 입장이다.

남자가 기도하거나 예언하거나 하나님의 권위의 보좌를 만질 때 그는 그의 머리를 덮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여자가 기도나 예언할 때는 머리를 덮어야 한다.

### **B.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지 않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남**

8절에서 바울은 머리를 덮는 두 번째 이유를 밝힌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남자에게서 취한 갈비뼈로서 여자는 남자로부터 나왔다(창 2:21-23). 하나님은 여자를 창조하시지 않았다. 그분은 땅의 흙으로부터 남자의 몸을 지어 이 몸 속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었다. 그 결과 아담이라 불리운 사람은 산 혼이 되었다. 하나님은 이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옆구리를 열어 갈비뼈를 취하여 이 뼈로 여자를 건축했다. 그러므로 여자는 창조된 것이 아니라 남자에게서 나온 것이다. 이는 여자의 위치가 남자의 옆구리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남자는 여자에 관한 그의 지위에 있어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 바울은 11절과 12절에서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고 주의시킨다. 주님의 계획과 배열 안에는 남자를

떠나 여자가 없고 여자를 떠나 남자가 없다. 남자는 여자의 존재 근원이다. 그러므로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온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가 태어나는 수단이요 따라서 남자는 여자로 말미암아 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관해 바울은 균형을 이룬다. 한편 그는 여자가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다고 말한다. 또 한편 바울은 남자가 그의 어머니를 통해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로 말미암는다고 말한다. 우리 또한 균형을 이루어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으며 남자는 여자를 통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 C. 남자가 여자를 위해 지음받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음 받았음

9절은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사도는 머리 덮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 있어서 강한 근거로 남자와 여자의 창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취한다. 이것은 어떤 인간이 만든 풍습에 의한 것이 아닌 거룩한 창조의 목적에 기초한다. 창조시에 여자는 남자와 짝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졌다(창 2:18, 24).

### D.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그 머리 위에 권위를 둠

10 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그 머리 위에 권위를 가질지니라』 고 한다. 여기에서 권위는 남자가 여자들 위에 머리 됨의 권위로서 머리에 쓰는 것을 의미한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머리를 덮는 가르침에 있어서 다른 근거를 갖는다. 머리를 덮음은 하나님의 머리되심, 하나님의 권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천사장은 그의 추종자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머리되심을 거스렸으며(겔 28:13-18, 사 14:12-15, 마 25:41) 그의 어둠의 왕국을 세워(마 12:26. 골 1:13)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이 되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후에 사탄은 사람을 기만하여 그를 따라 하나님을 거스르게 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사탄을 멸하고 사람을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다시 돌리기 위해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요일 3:8, 히 2:14, 골 1:13). 이제 믿는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하나님을 위해 말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머리되심 아래 있으며 거룩한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그 문제에 관계된 주시하는 천사들(고전 4:9 을 보라)에게 보여 주는 표를 가져야 하며, 그들(믿는이들)은 그분의 행정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를 지켜야 한다. 이 때문에 자매들은 그들의 머리에 표시로서 수건을 써야 하는 것이다.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그 머리 위에 권위를 두어야 한다는 바울의 말에는 의미가 있다. 천사장 사탄은 하나님을 위해 우주를 통제하는 위임을 받았었다. 그러나 그는 반역했으며 얼마의 천사들이 그를 추종했다. 물론 대다수의 천사들은 신실하게 하나님께 남아 있다. 하나님은 배역한 천사들을 다루기 위해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러나 사탄은 사람을 유혹했으며 사람은 그를 따랐다. 그 후에 하나님은 타락한 사람을 그분 자신께로 되돌리기 위해 구속 안에서 오셨다.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이 지금의 교회이다. 교회인 우리는 천사들, 즉 반역적인 천사들과 순종하는 천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이 우리는 그분의 머리되심을 대항하고 거역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포해야 한다. 그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머리되심 아래 남아 있다. 오는 왕국 시대에와 영원 안에서 하나님의 머리되심 아래 있게 될 것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이 거역하는 세대에서조차도 우리는 그분의 권위에 복종한다. 자매들의 머리 위에 있는 수건은 천사들에게 이것을 선포하는 표시이다.

13 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나』 라고 묻는다. 여기에서 바울은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음을 그가 제시한 이유에 따라 판단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 E. 긴 머리가 남자에게는 욕이 되나 여자에게는 영광이 됨을 본성이 우리에게 가르침

14 절과 15 절은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덮는 것을 위해 그에게 주신 연고니라』 고 말한다.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본성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우리의 타고난 성품을 언급한다. 본성은 우리에게 남자의 머리는 길어서는 안 되며, 여자의 머리는 길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여자는 여성의

성품상 그녀의 머리를 가리우는 긴 머리가 있는 것이 영광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것 또한 머리를 덮는 것에 있어서 사도의 가르침을 위한 강한 근거이다.

자매가 얼마나 대담하다 할지라도 만일 그녀가 그녀의 남편 위에 권위를 행사한다면 평강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어떤 사람도 그녀에게 불안함을 느끼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다.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그녀의 타고난 성품으로 그녀는 그녀의 남편 위에 권위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안다. 여성의 기질이 남성의 기질과 다르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심지어 우리의 타고난 성품에서 오는 느낌도 머리를 덮는 것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을 뒷받침해 준다.

15 절에서 바울은 여자의 긴 머리가 덮는 것을 위해 그녀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한다. 머리 수건에 대해 논쟁하는 어떤 사람들은 11 장에 있는 머리 수건이 단지 여자들의 긴 머리를 언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의 의견에 의하면 여자에게 긴 머리가 있는 한 그녀는 머리 수건을 쓴 것이 된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 구절들을 주의 깊게 읽어본다면 우리는 수건이 여자의 긴 머리 위에 추가된 어떤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자가 긴 머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녀가 그녀 위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음을 인식한다는 것을 가리키며 그녀가 수건을 쓸 때 이는 그녀가 하나님의 통치적인 배열에 아멘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 V. 논쟁이 없음

16 절에서 바울은 머리를 덮는 것에 관한 부분을 결론짓는다.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풍습이 없느니라』. 여기의 풍습은 논쟁과 논박과 쟁론의 풍습을 가리킨다. 사도들에게나 교회들에게 있어서 사도의 가르침에 관한 어떤 쟁론도 허용하지 않았다. 더욱이 이 구절에 있는 복수형의 교회는 모든 지방 교회들이 서로 독립적이지만 오히려 그들의 모든 행동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같은 보조 안에 있었음을 가리키고 있다.

머리 덮는 것에 대해 말할 때 우리의 의도는 자매들이 단지 교리적으로 외형적인 실행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회복이 이 나라에서 시작된 때부터 나는 자매들에게 그들의 머리를 덮어야 한다는 말씀을 전한 적이 없다. 이러한 메시지를 내가 전했다면 나는 형식에 구애받도록 격려하는 자였을 것이다. 우리는 외적인 형식을 보기 원치 않는다. 여자들이 머리를 가리우는 것은 천주교에서 널리 실행된다. 아랍인들 중에서도 여자들은 그들의 머리에 수건을 쓰도록 교육받는다. 그러나 그들의 경우에 있어서 머리 덮는 것에 대한 의미를 그들이 이해한다고는 믿을 수가 없다. 자매가 그의 머리에 수건을 쓸 때 그녀는 머리 덮는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 (고린도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53)

### 연구 문제:

1. 하나님의 행정 안에서 머리의 권위는 무엇이며 이러한 머리의 권위에 대하여 자매들은 어떻게 합당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
2. 머리를 덮개로 가리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가르침을 합당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3. 머리를 덮개로 가리는 것에 대해 바울이 제시한 다섯 가지 이유들은 무엇인가?

### 참고 도서 및 추가로 읽을 내용.

1. 고린도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53.
2. 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8.
3. 성경 안에 있는 핵심 진리 2권, 19장.